

# 석유화학제품 중국수출 “폭증”

1-4월 20억6700만달러로 44% 증가 ... 고무·플라스틱은 부진

중국으로의 부품소재 수출이 호황을 맞으면서 화학제품 수출도 늘고 있지만 고무·플라스틱 수출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기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한국-중국 부품소재 교역의 변화추이와 변화 원인을 조사한 결과, 2003년 국내 화학제품 중국수출은 50억3700만달러로 2000-03년 연평균 1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 1-4월에는 20억6700만달러를 수출해 전년동기대비 43.8% 대폭 증가했다.

고무·플라스틱은 2003년 3억4200만달러를 수출해 2000-03년 연평균 14.2%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2004년 1-4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1.0% 증가한 1억2100만달러에 그쳤다.

중국에 대한 부품소재 흑자규모는 2000년 이후 국내 전체 무역흑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에는 전체 흑자의 70.4%까지 늘어났다.

또 부품소재 중국수출은 1998-2003년 연평균 26.9%의 증가율을 기록해 전체 중국수출 증가율 24.1%를 앞질렀다.

2003년에는 화학제품, 전자부품, 1차금속, 컴퓨터부품 등이 호조세를 보였고 섬유, 고무·플라스틱은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특히 자동차부품, 컴퓨터부품, 일반기계부품 등은 수출 증가율에서 괄목할만한 신장세를 시현했다.

2004년 1-4월에는 중국으로의 부품소재 수출이 67.7% 증가해 전체 중국수출 증가율 44.6%를 크게 웃돌았다.

## 주요 업종의 중국수출액 추이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1-4)	연평균 증감률	
						2000-03	2004
섬유제품(소재)	848	790	772	818	255	▽1.2	5.2
화학물/화학제품	3,620	3,516	3,981	5,037	2,067	11.6	43.8
고무/플라스틱	230	255	304	342	121	14.2	11.0
비금속광물	122	157	173	218	78	21.2	18.3
1차금속	1,119	1,100	1,380	2,535	1,075	31.3	57.8
일반기계부품	537	587	820	1,253	622	32.7	58.7
컴퓨터부품	672	594	1,056	2,180	1,135	48.0	144.6
전기기계부품	571	604	848	1,178	511	27.3	42.7
전자부품	2,167	1,810	2,947	4,722	2,156	29.6	75.9
자동차부품	67	78	150	954	577	142.4	222.4
부품소재 전체	10,074	9,631	12,592	19,526	8,761	24.7	67.7

† 2004년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산자부는 부품소재 수출 호조를 이어가기 위해 부품소재 기술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성, 특히 수출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부품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중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28>